

안녕하세요, 박선용입니다.

오늘은 음악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

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. 여섯 살 때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처음 가르쳐 주셨고, 열 살 때는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어린 시절엔 그냥 음악을 연주하는 게 좋았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

음악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.

첫 번째는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. 처음엔 틀린 음을 치거나 리듬을 놓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기도 했고요.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깨달았어요. 실수하고, 실패하는 과정이 없으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걸요. 결국 실패는 성장의 필수 단계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.

두 번째는 노력과 헌신의 가치입니다. 무엇이든 최고가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처음엔 그냥 연습하면 실력이 늘겠지 생각했는데, 점점 연습할수록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제가 존경하는 연주자들이나 선생님들을 보면, 그들이 그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꾸준한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어요.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저도 점점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

세 번째는 열정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. 열정이 없으면 연주도, 말도, 행동도 다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하지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연주할 때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. 내 감정을 음악에 담을 수 있고,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. 그래서 열정이야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

마지막으로,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이고, 협력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연주하는 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. 같은 목표를 향해 연주하며 교감하는 순간들이 제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.

이런 이유로 음악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. 음악을 통해 성장했고, 많은 걸 배웠고,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